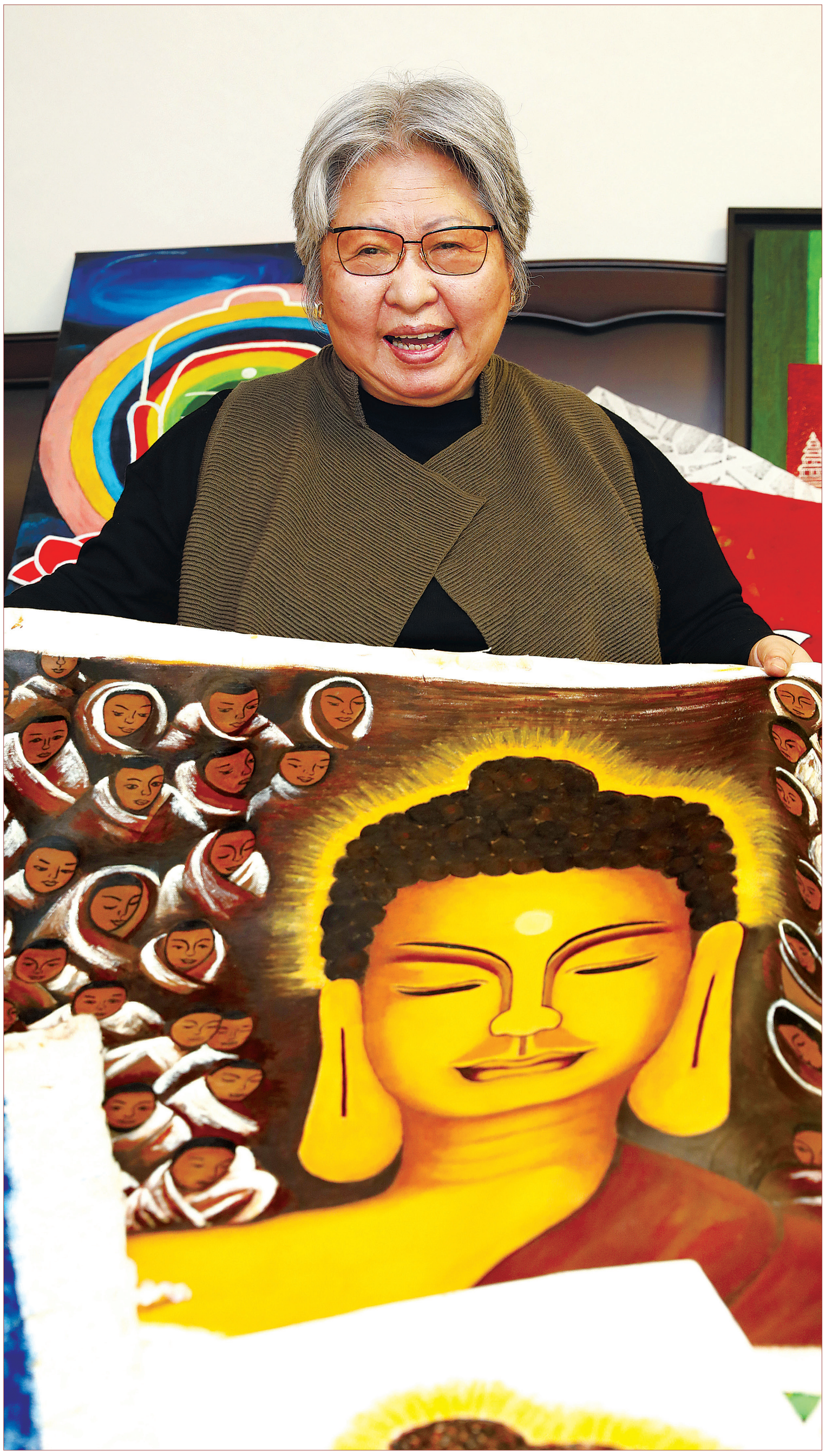
“불교는 사람 철들게 하는 가르침”



산문 밖의 禪

최혜자 작가 (81)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자신을 평생 괴롭힌 병마를 인생의 가장 큰 선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수행’일 것이다. 수행이라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오늘날에서 그것을 수행이라는 말로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민망스러운 일은 아닐까. 조심스러운 마음이다. 자신을 ‘부처님의 영원한 학생’이라고 말하는 최혜자는 평생 자신을 힘들게 했던 병마를 공부로 받아드리고, 삶의 동기로 삼았다. 미술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불교계에 이름 하나 적은 바 없는 그녀는 병마 속에서 부처님을 그리고, 아들의 바른 삶을 위해 부처님의 말씀을 옮겨 적으며 살았다. 부처님을 2백 점 넘게 그려왔으며, 불서를 4권이나 출간했다. 지난해는 그 그림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이제 작가으로 불리는 최혜자의 삶을 들여다본다.

시련 또 시련

최 작가의 인생을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녀의 삶 전반에는 시련이 가득하다. 특히 삼십대 후반부터 겪어오고 있는 병마는 그녀의 삶 자체다. 하지만 최혜자 본인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그녀는 남들이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들을 오히려 삶의 동기로 삼았다. 그리고 그 삶의 동기는 치열하고 열정적인 삶으로 이어졌다.

최 작가의 시련은 가족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념의 시대를 살았던 최 작가의 고향은 함경남도 영흥이다. 선대의 대부분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다음 선대는 대부분 왼편의 길을 걸었다. 당시 이 땅에서 왼편을 바라본다는 것은 힘겨움이었다.

우선 연좌제가 그녀의 청춘을 묶었다. 당시 이 땅에서 이념의 문제는 마치 선과 악의 문제와 다를 바 없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그녀였지만 그녀는 번듯한 법조계를 비롯한 공직을 꿈꿀 수 없었다.

시련은 이어진다. 그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과 사별한다. 대신 그녀의 곁엔 소중한 아들이 있었다.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최 작가의 삶은 치열해진다. 여성 홀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건사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다. 기독교 신자였던 그녀는 기도했다. 자신의 삶에는 오로지 어머니로서의 삶만이 온전하기를.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삼십대 후반부터 큰 병마와 싸우기 시작한다. 이십대 후반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던 그녀는 ‘신경성’으로 시작되는 많은 병들을 얻게 된다. 아픈 날들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녀는 그 병마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신의 응답이라고 말했다.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 병마가 있어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수 있었다는 것이다.

부처님을 만나다

최 작가는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불법을 처음 만난다. 1973년부터 다섯 살 아들과 함께 태국에서 살게 된 최 작가는 한 · 태문화연구원을 만들어 문화와 관련된 일을 했다. 그리고 1984년이었다. 이미 그녀는 많은 병들로 힘겨워하고 있었다.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 그녀였다. 1주일 일을 하면 2주일을 누워있어야 했다.

하지만 오랜 태국에서의 생활로 그녀의 이름은 왕실에 닿아 있었다. 태국의 왕실은 최 작가에게 마하짜끄리시린톤 공주가 쓴 〈법구경〉 해설 시집 〈불교 격언에 따른 시〉를 한국어로 번역해 출간해줄 것을 부촉했다. 최 작가가 왕의 나라,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른 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경만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최혜자에게 〈법구경〉이라는 그 이름은 너무나 먼 언어였다. 그야말로 불교의 ‘佛’자도 몰랐던 최 작가였다. 태국어를 아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최 작가는 대사관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대사관을 통해 〈불교성전〉이라는 책을 구했다. 부처님의 생애를 비롯해 주요 경전의 내용 등 불교 공부를 위한 전반적인 텍스트가 들어있는 입문서였다. 최 작가는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눈이 확 떠졌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삶과 진리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들이 하나 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책(불교성전)에 다 있었어요. 부처님 말씀에 다 있었어요. 새로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다가왔어요.”

끝없는 생애 시련

태생부터 연좌제로 고난 시작

결혼 3년 만에 남편 사별

30대 말 병마와 투병 시작

1973년 아들과 태국 이주

1984년 〈법구경〉 번역서 출간

계기로 불교 공부 시작

불교공부 6년 만에 불교귀의

눈 수술 후 연꽃그림 시작

최 작가는 일을 위해 보기 시작한 〈불교성전〉에 하루하루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깊이깊이 끌리기 시작했다. 최 작가는 병마와 싸워야 하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불교공부를 이어갔고, 이태 뒤인 1986년 마하짜끄리시린톤 공주가 쓴 〈법구경〉 해설 시집 〈불교 격언에 따른 시〉를 한국어로 출간한다.

귀의, 그리고 첫 불사

1988년 최 작가는 프랑스 파리로 이주한다. 최 작가는 왕실이 부촉한 출간을 마친 후에도 불교공부를 이어갔다. 불교에 빠져 살았다. 그녀는 계속 아팠다. 완치될 수 없는 병마와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그녀는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작가는 마침내 부처님을 마음속에 들인다. 귀의였다. 계사도 연비와 계첩도 없었지만 그녀의 귀의는 조용한 출가와 같았다. 마음 깊은 곳에 오롯이 부처님을 모셨다. 최 작가가 불교공부를 시작한지 6년만이었다.

“불교는 사람을 철들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좋았어요. 철이 들어도 몇 번은 들었어야 할 그 나이에 내가 철들어가는 나를 볼 줄은 몰랐어요.”

B2면에 계속

최혜자 작가는… 경기여중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1973년 태국으로 이주했으며, 마하짜끄리시린톤 공주의 〈법구경〉 해설 시집 〈불교 격언에 따른 시〉를 번역 · 출판(86년)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1988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살다가 2018년 가을 한국에 돌아왔다. 30대 말부터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불교 공부와 그림 작업에 매진했다. 2018년 부처님 그림 63점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으며,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올해의 불서 10)〉,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세종우수도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를 출간했다.

INSIDE

B3~7 창간특집 기획 불교언론&뉴미디어

B8 출판 〈초의 스님 전상서〉 박동춘 지음

B9 문화 국博, 한국문화재 폴란드 展